

불심가족

일가족 15명 불교조각 '동고동락'

부부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가족의 연으로 묶인다는 것은 전 생부터의 수없이 지중환 인연이 쌓여 서 되는 것인 것이다. 그렇다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독특한 불심을 지닌 불자들로서 '승화된 예술의 최고봉이 불심'이란 신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며 착박한 '木彫' 땅에 씨를 뿌리고 싹을 틔워 이젠 꽃을 활짝 피워가는 것은 무슨 인연들이 쌓인 소산일까.



불심 가족

박찬갑씨 一家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박찬갑씨(조각가·56세) 형제들이 오래간만에 조계사에 모였다. 서로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한데 모이기는 너무나 바쁜 이들 가족은 조계사 부처님께 참배도 드리고 연등기는 모습도 구경하며 서로의 근황도 얘기하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박찬갑씨의 3남 2녀 형제자매들은 예술, 특히 조각의 길을 걷고 있는 포교사 가족이다. 박찬갑씨는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하늘새' 시리즈

이렇게 형제 자매 부부 모두가 '조각'에 관련된 한길을 걷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대학에서 불교공부까지 열심히 해 포교사 자격증을 가진 포교사들이다. 찬수씨는 지난 80년 몇 인되는 일본지역 국제포교사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찬수씨와 찬도씨 부부도 불교고양대학을 수료해 포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덴마크 등 북유럽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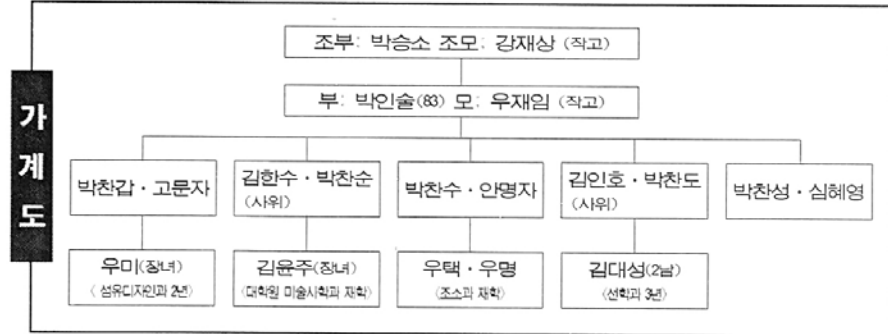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 특집



조계사 참배에 나선 박찬갑씨 가족. 가족 대부분이 독특한 불심의 바탕위에서 예술의 길로 정진하고 있다.

왼쪽부터 찬갑, 찬성, 찬갑씨 부인 고문자, 찬수, 찬수, 찬도씨 남편 김인호, 찬도씨.



를 비롯 인간과 자연, 자유의지 등을 주제로 하여 꾸준한 작품활동을 해온 중년 조각가. 그의 세번째 동생이 여주 목아불교박물관장으로 유명한 불모(佛母) 박찬수씨(48세)다. 막내동생인 찬성씨(35) 역시 조각을 배워 만행인 찬갑씨 작업실에서 같이 작업하고 있다. 둘째인 여동생 찬순씨(50)의 남편인 김찬수씨(58)는 조각을 위한 나무를 현장에서 고르고 다듬는 재단 일을 수십년째 해오고 있다. 넷째 여동생인 찬도씨의 남편인 김인호씨도 목각을 30여년 해오고 있으며 박찬수씨와 돈독한 친구사이다.

남편일 도우며 배워

여형제들이 찬수씨와 찬도씨도 칼질이나 페이퍼질 등에 능숙하다. 찬갑씨의 부인 고문자씨도 조각을 배웠고 남편일을 돕고 있다. 남편이 운영하는 정선지체이직업훈련원생들에게 조각을 가르치며 그들의 재능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찬수씨의 부인 안영자씨도 금관기사 문양디자인에 일가견이 있어 금입사하는 일을 도맡고 있다.

서 자주 전시회를 가지며 교류를 펴온 찬갑씨는 덴마크에 한국사찰을 건립해 포교에 나서겠다는 원력을 세워놓고 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어떠한가. 찬수씨의 두 아들 모두 조각을 전공하고 있다. 큰아들 우택과 작은 아들 우명씨는 강릉대학교 조소과에 재학 중이다. 지금은 둘다 군대에 가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각의 맥을 이어갈 계획으로 있다. 찬갑씨의 큰딸 우미씨는 대학에서 섬유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으며 찬순씨의 1남2녀중 큰딸 윤수씨도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하고 있다. 윤수씨의 남편 노재명씨는 예술계통인 전통음악경론가이고 찬도씨의 둘째아들 찬성씨는 동대선학과 3학년이다. 장차 불교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지만 그 역시 조각에도 솜씨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재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들 가족들은 한결같이 할머니 강재상보살의 지극한 불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금은 돌아가셨지만 할머니는 고향마을에서 유명한 보살이었다. 경남 산청군 지리산 근처 산촌리 가까이에는 성철스님이 출가했던 절인 대원사가 있다. "할머니는 무엇이든 밭에서 거둔 첫곡식, 첫아재는 제일 먼저 절에 공양물였습니다. 일할 때나 쉬실 때나 자리에 누워서나 언젠가 입에서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염송이 떠나지 않았지요. 비록 무학이셨지만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 마음을 풀뚝가라면 서러워 할만큼 지극 하셨지요" 할머니 손은 마을에서 유명한 약 손이었다고 한다. 동네사람 누구가 아프다고 하면 달려가 기도해 주며 간호해 주었다. 손으로 쓰다듬어 주거나 해독 나았을 정도로 할머니는 남의 어려움이나 곤란을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없었다. 이러한 할머니의 보살심은 마을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다는 것. "지리산 정기를 받은 맑고 수려한 고향의 자연과 할머니의 지극한 불심이 우리들을 자연스럽게 예술로 이끌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이들 형제들은 같은 조각이라도 분야가 다르다.

할머니 강재상 보살 불심 '자손들에 영향' 예불로 하루시작...대부분 포교사 자격 지녀 4년후 대규모 가족전 예정...자녀들도 미술전공

만행 박찬갑씨는 현대조각작이다. '불꽃' '흔의 소리' '하늘새' 'DMZ-호소리' 등 그동안 개최한 개인전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간결하고도 절제된 조형방식으로 인간 본질적인 문제나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민족분단 등을 설치미술 이벤트등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공예대전 대통령상

박찬수씨는 불교미술전람회와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전통조각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단순한 전통재현을 파괴해 전통목조의 현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개관 3주년이 된 목아불교박물관은 이제 불교계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한뼘쯤 들르는 명소가 됐다. 두 형제의 작품은 국내보다 국외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 김인호씨는 같은 전통조각 쪽으로 목아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본쪽 일을 맡고 있는데 현대적 조형의 목조를 창조하고 있다. 막내 박찬성씨는 소목분야이다. 이들에게 고향의 자연과 할머니의 지극한 불심이 우리들을 자연스럽게 예술로 이끌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이들 형제들은 같은 조각이라도 분야가 다르다.



강릉대 조소과에 다니고 있는 우택(오른쪽)과 우명 형제. 장차 아버지 목아박물관장 박찬수씨의 뒤를 잇는 훌륭한 조각가가 될 것이다.

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독학하다시피 배워지만 전통의 맥을 살려 그 옛날 우리 장인들의 뛰어난 솜씨를 면면히 이어갈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현대와 접목시켜 발전시켜가겠다는 큰 과제가 저희 가족에게 있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난 65년 원주에서의 찬갑씨와 찬수씨의 2인전, 72년 두형제와 김인호씨가 합쳐 국립공보관에서 조각 3인전을 열었다. 72년 전시회는 이

들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뜻깊은 행사였다. 전시회 첫날 개막 행사는 언론들 일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왜냐하면 큰형 박찬갑씨의 주례 겸 사회로 전시장에 온 관람객들이 하객이 되어 찬수씨와 안영자씨, 찬도씨와 김인호씨의 합동결혼식이 열린 것이다. 한복을 입은 두 쌍의 신랑신부가 나와 "오늘부터 우리는 부부가 됩니다"라는 인사로써 식은 5분만에 간략하게 끝났는데 전시장을 둘러보는 이벤트성 행사로 인해 장안의 화제를 모은 것이다. 같이 목공예학원을 하면서 그의 동생과 자른연스럽게 정이 들어 결혼까지 이른 김인호씨는 찬수씨의 오랜 친구이다. 목아박물관에서 함께 일하는 찬수씨와 김찬수씨 그리고 김인호씨는 서로서도 처남 매부 동서지간이면서 또한 든든한 후원자다. 오랫동안 같이 일하다보니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다.

앞으로 4년뒤엔 만행 박찬갑씨의 회관을 갖는다. 그때쯤 전체 가족의 작품을 모아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도 가족전을 마련해 볼 계획이다. 이들 가족은 아침예불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예불로 하루를 마감한다. 제사도 찬수씨 집전으로 불교식으로 지낸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은 방학이면 사찰수련회에 참여해야 했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드리는 것이 습관처럼 돼 있다. "아이들이 흠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매를 든 적이 없습니다. 밭을 주는 대신 '복'에 맞춰 반야심경(또는 천수경)을 몇번 외워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큰소리로 경전을 암송하다보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반야심경)과 (천수경)을 줄줄 외우게 되는 부수적 효과까지 따라온다. 가훈은 '큰 마음 큰 행동 인간답게.'

"반야심경 외워라"

"회광반주(迴光返照)정신으로 항상 자신의 삶을 돌이켜 비추어보아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품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의 다짐이 들어 있습니다. 예전 어렵게 어렵게 조각을 배울 때 뒤엎던 그 오묘한 마음, 부처님께 향하는 마음처럼 일심으로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것이지요" 찬갑씨 형제들의 아버지 박인수씨는 원래 농사꾼이지만 초창기 어려울 때 아들들의 조각을 거들다 보니 그때 이제는 프로 못잖은 조각쟁이가 되었다. 큰아들 막내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 박인수씨는 83세 노령이지만 근력이 정장해 가끔 (천수경)을 다 읽는다. 아버지의 독송이 무의의 무렵 옆에 있는 자식들도 자랄로 독송에 동참한다. 그럴 때의 아들 가족들의 모습은 그럴 수 없이 정경다.

이경숙 기자

Advertisement for '신비의 바라밀 속뜸기 보금 안내' (Mystery of Barimil Sootpottery Nest Guide). It features a diagram of a sootpottery nest, a list of symptoms it treats (e.g., back pain, rheumatism, hypertensi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Barimil Sootpottery Health Research Institute.

Advertisement for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Causes and Remedies for Women's Diseases). It features a diagram of a woman's body, a list of symptoms (e.g., menstrual pain, irregular period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research institute.